

주5일근무와 웰빙시대의 어촌관광 진흥전략

정준 | 농촌체험휴양협회 회장

충청남도 서해안의 어촌관광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전국적으로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웰빙(Well-being) 문화를 접목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웰빙’이란 대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 심신의 건강을 추구하는 현대인의 라이프 스타일로서, 남녀노소나 계층간의 구분없이 누구나 공감하는 생활철학이다.

그러므로 도시의 웰빙족들을 충남 서해안의 어촌관광지로 유입시키기 위해서는 몇가지 준비가 필요하다.

첫째는 웰빙의 핵심인 ‘심신의 건강을 추구하는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한다.

그래서 복잡한 도시 생활 때문에 심신에 누적된 현대인의 스트레스를 서해안의 아름다운 해안과 섬에서 말끔히 씻어낼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기 위해 적극 추천하는 것은 바로 ‘학춤 건강법’이다.

백의 민족의 심볼인 학은 예부터 무병장수와 입신양명과 선비의 깨끗한 정신세계를 의미하는 대단히 격조 높은 조류이다.

늦가을부터 초겨울 사이에 서해의 임진강 하구와 천수만을 거쳐 남해의 순천만에서 울동하는 학은 옛 선비들로부터 지극한 사랑을 받던 새이다. 선비들은 학의 문화를 생활속에서 즐기기 위해 ‘학춤’을 창안해서 오랫동안 추었다. 옛 선비들이 즐겨추었던 학춤은 예술적으로도 아름다울 뿐 아니라, 건강이란 측면에서도 대단히 우수한 심신 수련법이다.

지금 전국적인 웰빙 붐을 타고 곳곳에 명상원, 요가학원, 기공 수련원들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서고 있다.

그런데 우리의 학춤 이야말로 명상법·단전 호흡·유산소 운동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통합적인 한국형 건강수련법인 것이다.

둘째는 자가용을 소유한 자가 운전자들을 어촌관

광의 주요고객으로 삼아야 한다.

1970년대 중반 마이카 붐이 일어난 이후 2005년 상반기 현재 전국의 자동차 보유 대수가 이미 1천5백만 대를 넘었다. 특히 금년부터는 '주5일 근무'가 확산되면서 이미 금요일 오후가 되면 전국의 주요 관광지로 빠져나가는 자가용의 물결로 고속도로가 정체되기 일쑤이다.

그러므로 제대로 홍보만 하면 손쉽게 찾아올 수 있는 서울 및 수도권외 자가운전자들을 위한 타켓 마케팅 전략의 수첩이 절실하다. 이미 2003년에는 '동해안으로 떠나는 자동차 축제'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고, 금년에는 해양수산부가 주최하고 경상남도 와 전라남도가 후원하는 '남해안으로 떠나는 자동차 축제'가 지난 6월 현충일 연휴기간(6월4일~6월6일)중에 전국적인 규모로 개최되었다.

이제는 서해안에서 이러한 자동차 축제가 개최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지난 3년동안의 자동차 축제를 통해 도출된 결론은 어촌을 찾아오는 자가운전자들은 주로 30~40대의 가장들이며 가족단위로 이동한다는 것이다.

또 어촌을 찾아온 자가운전자들은 관광버스를 타고 온 단체 관광객들에 비해 농수산물을 직접 구매하는 비율이 높아서 농수산물 직거래가 활발히 일어난다.

마지막으로 어촌을 찾아온 자가 운전자들은 어촌 체험이나 문화현장이나 역사유적지 답사를 하려는 욕구가 높아서 민박, 빈집구입, 민간투자 등의 도시와 어촌간의 문화교류가 자연스럽게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웰빙시대의 충남 서해안의 어촌관광 활성화는 보다 용이하게 달성할 수 있는 목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